



임실농협, 제주 효돈농협과 지역상생 자매결연 협약

전북 임실농협(조합장 최동선)과 제주 서귀포 효돈농협(조합장 백성익)은 지난 13일 효돈농협 본점에서 '지역상생 자매결연 협약식'을 열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임실농협과 효돈농협의 조합장 및 임직원, 임실군지부장, 서귀포시지부장 등 30여명이 함께 자리하며 두 농협의 뜻깊은 협약식을 축하했다. 이번 협약으로 두 농협은 △지역농협간 교류 활성화 △농산물직거래 및 판로확대 협력 △농촌마을 관광체험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협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두 농협은 농업·농촌의 가치를 확산하고 '농민의 마음이 곧 하늘의 뜻'이라는 범 농협 캠페인 농심천심(農心天心)을 알리고 실천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고창소방서, 하반기 수난사고 대비 인명구조훈련

고창소방서는 16일, 고창읍 노동저수지 일원에서 수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구조대원의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2025년 하반기 수난사고 대비 인명구조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SOP)를 실제 상황에 적용하여 수난사고 인명구조 능력을 높이고 긴급구조체계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고창소방서 구조대원이 참여한 가운데, 수중통신장비 조작 및 수난구조장비 운용법, 익수자 수색 및 구조 기법, 수난사고 시 응급처치 등 이론과 현장 실습이 병행된 실전형 훈련으로 구성됐다. 특히 수중탐색과 인양 훈련을 통해 구조대원들은 수난사고 시 신속한 인명구조 및 안전관리 절차를 숙달하며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진안군 백운면, 2025 진안군민의 날 체육대회 해단식

진안군 백운면(면장 이보순)은 지난 15일 백운면행정복지센터에서 『2025 진안군민의 날 화합 체육대회』 해단식을 개최했다. 이번 해단식은 지난 10월 12일 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체육대회에서 백운면 선수단이 보여준 열정과 단합을 되새기고, 대회 준비와 진행에 협조한 각 기관·단체 및 주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대회는 군민의 날을 기념해 진안군 11개 읍·면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으며, 백운면 선수단은 배구, 바구니농구, 바구니농구, 줄다리기 등 여러 종목에서 고른 성적을 거두며 종합 1위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배구와 바구니농구주머니 경기 종목에서는 각각 1위를 차지하며 단체의 저력을 보여줬다. /진안=우태만 기자

정신건강의 날 맞아… 무주 군민 ‘정신건강’ 살핀다

무주군, 정신건강 인식개선 행사 진행… 작은 음악회·마음안심버스 운영 등 ‘호응’

무주군이 '2025년 정신건강의 날(10. 10.)'을 기념해 오는 24일까지 지역주민 대상 정신건강 인식개선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마주해요(마주해요 나의마음, 주목해요 너의마음, 해소해요 우리함께, 요청해요 도움을)'를 주제로 한 이번 행사는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일상에서 마음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한다는 취지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16일 무주읍 반딧불 장터 공연장에서는 가수 '김가영의 트로트 공연'과 미술, '셋두리' 버스킹 공연 등 '작은 음악회'가 열려 호응을 얻었다. 이외에도 '마음건강 나무 꾸미기 체험', '전북 마인랜드를 활용한 자가검진'이 진행됐으며 '마음안심버스'와 혈압·혈당 검진 등 '통합이동건강증진체험'도 관심을 모았다. 이지영 무주군보건소의료원 보건행정과장은 "정신건강은 신체 건강과 더불어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주민들이 마음의 휴식을 얻고, 정신건강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나누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지난 9일 안성면민의 날, 10일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장에서는 대군민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15일 안성면 장날에도 덕유산장터에서 '마음안심버스'를 운영해 호응



을 얻었다. 17일 무풍면민의 날 현장에서는 '정신건강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관련 정보 제공과 상담 안내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10월 한달 '정신건강의 날과 함께하는 건강걷기 챌린지(워크온)'를 운영하며 주민들이 걷기 실천을 통해 마음 건강을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신건강 행동 수칙 안내 및 관련 상담은 무주군건강복지센터(063-320-8332~4), 또는 24시간 상담전화 1577-0199번에서 진행하며 자살 예방 상담은 109번(24시간)으로 전화하면 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정읍장애인주간보호센터,전북대 의료진 초빙 구강검진

정읍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이하 센터)가 지난 15일, 의료취약계층인 성인 발달장애인들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전북대학교 치과병원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전문 의료진을 초빙했다. 의료진은 센터를 직접 방문해 검진부터 교육까지 진행하며, 이용자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구강관리의 중요성을 배우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번 교육은 치과 병원의 낮은 환경에 불안감을 느끼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의료진이 센터로 직접 찾아와 진행했다. 덕분에 이용자들은 매일 생활하는 익숙한 공간에서 편안하게 구강검진과 불소도포를 받고, 올바른 칫솔질 방법 등 스스로 건강을 지키는 법을 배웠다. 센터는 검진 결과를 각 가정에 안내해 필요한 경우 신속히 전문적인 치과 치료를 받도록 연계할 방침이다. /정읍=김태환 기자

농진청, 2025년 한국홀스타인품평회에서 저지종 젖소 우수상 수상

임실군 보급으로 국내 저지종 사육 기반 확대… 현장 홍보·체험행사 병행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경기도 안성시 안성팜랜드에서 열린 '2025 한국홀스타인품평회'에 저지종 암소 1두(16개월령)를 출품해 '육성·미경산우' 부문 우수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품평회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종축개량협회가 주최하고, 전국 젖소 농가와 관련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젖소 품평회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저지종 젖소의 개량 성과와 산업적 가치를 알리기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산발한 저지종 암소 1두를 출품했다. 출품된 저지종 젖소는 혈통 등록과 질병 검사, 외모 심사 등 엄격한 평가를 거쳤으며, 대회를 위해 체계적인 순치 과정을 밟았다. 이 과정에서 국립축산과학원은 품평회 현장에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저지종 젖소 개량 사업, 국내산 풀사료 활용, 유가공 연구 현황 등을 소개했다. 또한, 저지종과 홀스타인 치즈·요구르트 시식 행사를 통해 소비자 체험 기회를 마련하고, 현장에서 수렴한 의견을 향후 연구와 산업화에 반영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낙농과 김상범 과장은 "이번



품평회 참가로 저지종 젖소의 가치와 개량 효과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농가와 협력해 저지종 젖소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축산과학원은 이번 대회에 출품한 저지종 암소를 임실군에 보급해 수정란 생산과 저지종 사육 기반 확대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포함해 올해까지 임실군에 보급된 저지종 젖소는 총 7두로, 지역 내 저지종 젖소 산업 기반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상근 기자



장수군 계남면, 주거 취약가구 대상 이불 세탁 봉사

장수군 계남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명호·진영순)는 계남살내체육관에서 위원 14명이 참여한 가운데, 관내 주거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겨울이불 세탁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봉사는 협의체 위원들이 평소 돌봄 활동을 하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세탁시설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위생상태가 좋지 않은 이불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체는 장수군자원봉사센터의 세탁 차량을 지원받아 일상생활이 어려운 10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겨울이불 2채씩 세탁했다. 위원들은 직접 각 가정을 방문해 세탁물을 수거하고, 세탁 후 깨끗하게 말린 이불을 전달하며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김제교육지원청, 자원봉사단 ESG 합동 캠페인 실시

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윤범)은 16일, ESG 실천의 일환으로 시니어 세대와 함께하는 '차대인식개선 캠페인' 자원봉사 활동을 벌였다. 이번 캠페인은 김제노인종합복지관 동고동락 봉사단과 협력하여 김제시 점통시장에서 상인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미래의 나를 위해, 건강한 기억력을 지키자'라는 주제로 차대 인식 개선 캠페인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특히 김제교육지원청 직장 동호회 보람드림 소속 회원 12명이 참여하여, 캠페인 홍보자료를 배부하는 등 동고동락 봉사단과 함께하며 활력을 더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